



보도자료

더불어민주당

논산·계룡·금산 국회의원

다시, 민주주의 **김종민**



배포 즉시 보도

2023. 10. 17. (화요일)

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08호 (T)02-784-5920 (F)02-6788-6315 (E)withmin413@gmail.com

내부징계전력자 194명,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

- 부국증권 28명으로 가장 많고 하나증권, KB증권, 한국투자증권 순
- 은행 2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

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(정무위원회, 충남 논산·계룡·금산)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으로 밝혀졌다.

징계별로는 ▲정직 1명, ▲감봉 11명, ▲경고 29명, ▲견책 56명 등이었고 ▲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고, 기업별로는 ▲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. 이어 ▲하나증권 18명, ▲KB증권 17명, ▲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.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.5년간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.

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,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.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

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.

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이에 김종민 의원은 “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.” 라고 비판하며, “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
// 끝

■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전력자 회사별 현황

회사명	인원
부국증권	28
하나증권	18
KB증권	17
한국투자증권	15
신한투자증권	11
유안타증권	11
이베스트투자증권	8
비엔케이투자증권	7
SK증권	6
메리츠증권	6
유진투자증권	6
케이프투자증권	6
코리아에셋투자증권	6
한화투자증권	6
신영증권	4
유화증권	4
흥국증권	4
리딩투자증권	3
하이투자증권	3
현대차증권	3
IBK투자증권	2
NH투자증권	2
교보증권	2
다올투자증권	2
미래에셋증권	2
키움증권	2
한국에스지증권주식회사	2
DB금융투자	1
대신증권	1
도이치증권	1
상상인증권	1
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	1
에스아이증권	1
카카오페이증권	1
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	1
계	194

*자료 : 금융감독원, 김종민 의원실

■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전력자가 받은 징계 현황

징계내역	인원
주의	72
경고	29
견책	56
정직	1
감봉	11
조치불문	1
복수징계	24
계	194

*자료 : 금융감독원, 김종민 의원실